

#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 · 인프라 동향 보고(11.21)

## 1.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

### ○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Source: <https://www.bb.org.bd/en/index.php/econdata/index>

구 분	내 용	비 고
은행간 환율	111.00 Tk/USD (전주대비 0.00△)	'23.11.21 기준
기준금리	4% 유지	'23.10월 기준
월평균 시중금리	7.35% (전월대비 0.94△)	'23.10월 기준

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

### ○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(현지화 10년물 8.505%)

▼ 8.505 -0.00 -0.00%

출처: <http://www.worldgovernmentbonds.com/bond-historical-data/bangladesh/10-years/>

Yield changed +0.0 bp during last week, +0.0 bp during last month, +29.5 bp during last year.

Current Yield is close to **1 year maximum value**

Period	Change	Min	Range	Max
1 Week	0.0 bp	8.505 % Nov 14, 2023	No change	8.505 % Nov 21, 2023
1 Month	0.0 bp	8.505 % Oct 21, 2023	No change	8.505 % Nov 21, 2023
6 Months	0.0 bp	8.505 % May 21, 2023	No change	8.505 % Nov 21, 2023
1 Year	+29.5 bp	8.210 % Nov 21, 2022		8.510 % Jan 14, 2023

Current Yield: 8.505%  
Last update: 21 Nov 2023 0:15 GMT+0

### □ 경상수지 적자 감소 (7-9월에 10억 달러 이하로 축소)

- 방글라데시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 7~9월 10억 달러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나타남.
- 방글라데시 은행(BB)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367만8천 달러 적자에 비해 현 회계연도 2023-24년 첫 3개월간 8억9천2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냄.

- BB(중앙은행) 관계자에 따르면 2023~24년 3월까지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약 1천만 명의 송금 유입액은 56억7천만 달러에 달하며, 외환송금은 수출소득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.

## □ 12월 인플레이션은 8% 예상, 내년 6월부터 준비금 증가할 것

- 방글라데시 은행 총재는 "인플레이션이 올해 12월까지 8%, 24 회계연도 말에는 6%로 낮아질 것"이라며 2024년 6월부터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.
- 중앙은행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노력중. 또한, 통화 흐름을 줄이기 위해 금융 당국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, 금리도 인상함.
- 10월 물가 상승률은 9.93%에 달하며, 이는 2023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. 국제통화기금(IMF)의 계산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적립금이 있으며, 이는 4개월 동안 국가의 수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임. 2021년 8월 방글라데시의 적립금은 48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.

## 2. 건설 · 인프라 시장 동향

### □ Chattogram 고가 고속도로 개통

-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11월 14일 차토그램의 첫 번째 고가 고속도로를 개통, 16.5km의 고속도로로 인해 도로 연결이 더욱 효율화됨에 따라 항만 도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.
- 국가경제위원회(ECNEC)는 2017년 7월에 프로젝트를 승인, 당초 총 사업비는 3,250 크로어이고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될 것으로 계획했으나, 그러나 차토그램 개발청(CDA)의 사업시행 지연으로, 정부는 사업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음. 개정된 프로젝트 비용은 현재 4,298.95 크로어이며 마감 시한은 2024년 6월로 변경.

- 16.5km에 달하는 4차선의 차토그램 고가 고속도로는 정부재정 사업임.

## □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, BRI 프로젝트

-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(BRI)는 개발도상국, 특히 신흥 경제국의 인프라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수행. BRI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260억 달러, 합작 투자 프로젝트에 140억 달러를 지원받아 총 400억 달러 패키지를 받게 됨.
- 방글라데시는 2040년까지 인프라 투자 수요가 GDP의 1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로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BRI 프로젝트를 수행해 옴.
- 파드마 다리, 메트로레일, 카르나폴리 터널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온 바 있음. 파드마 다목적 대교를 비롯, 12개의 고속도로와 21개의 교량 프로젝트는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'실크로드'의 연장선상에 있음.
- 중국은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구상(BRI)에 따라 35개 프로젝트에 44억 5천만 달러를 투자. 뿐만 아니라 미국의 AEI(American Enterprise Institute)에 따르면 중국의 방글라데시 총 투자액은 70억 7천만 달러임. 또한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229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건설 계약 체결. 중국의 투자로 인해 약 55만 명의 고용을 창출.
- 그러나,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대형 프로젝트는 문제도 많은데, 시공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한 것은 방글라데시 내부의 부패 고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, 중국 정부도 이를 더욱 부추겨 부패를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의 잘못된 자금 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, 그 핵심에 있는 BRI 자금 지원 자체가 불안정성을 촉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.

## □ JICA, 혁신적 파트너십 50주년 기념

- JICA는 방글라데시와의 협력 50주년을 기념. JICA의 협력은 50년 동안 교육, 보건, 농업 및 농촌 개발, 거버넌스 개선, 민간 부문 개발, 재해 위험 감소, 상수도 및 위생, 고형 폐기물 관리, 전력 및 에너지 등을 포함.
- JICA는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(ODA) 차관으로 32억8천500만엔(약 220억달러), 2022년까지 무상원조로 1천440억엔(약 9억6천500만달러), 2022년까지 기술협력으로 1천40억엔(약 6억9천900만달러), 현재까지 민간투자금융으로 250억엔(약 1억6천600만달러)을 지원.

#### □ 몽글라항 확장사업, 중국이 대출신청서 제출을 방정부에 요청

-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대사관은 몽글라항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에 정식 대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.
- ERD는 2016년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몽글라항의 확장과 현대화를 위해 자금을 동원하려 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바 있음.
- 한편, 중국 자금은 항구의 현대화와 품질 및 신속한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항구 개발을 위한 별도의 합의에 따라 Tk 4,459 크로어를 제공할 인도의 자금은 항구의 용량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.
- 중국 대사관은 올해 1월 재정부에 방글라데시가 당초 3억5천352만 달러를 요구했던 이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승인.
- 중국 대사관은 이 프로젝트에 얼마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, 사전에 지명된 계약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.
- 9월 12일, 국가경제위원회(ECNEC) 집행위원회는 Tk 4,282.36 크로어가 수반되는 몽글라항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.
- 프로젝트 요약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대 정부 체제로 3,782.36 크로어를 차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 나머지는 500.39 크로어 정도로 정부가 조달할 예정이다.

### 3.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

#### □ 12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정치 집회 계속될 것으로 전망

- 여러 정당이 선거 취소를 요구하며 최소 12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항의 캠페인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.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1월 7일에 실시되며, 선거운동은 12월 18일~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.
- 야당 활동가들은 11월 15일 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으며, 몇몇 야당은 11월 16일부터 시위를 촉구, 따라서, 앞으로 며칠 동안 섰다운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음.
- 방글라데시 노동당은 11월 19~20일 전국적인 섰다운 파업을 촉구.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른 단체가 조직한 시위를 포함하여 정당의 추가 시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. 이러한 집회 중에는 예고 없이 반대 시위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, 예상되는 집회 장소로는 선거관리위원회, 정당 사무실, 경찰서, 주요 정부 건물, 박물관, 공공 광장, 운동장, 사원, 기자 클럽, 주요 도로 등이 있음.
-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국민당(BNP)과 그 파트너들은 현 정권의 퇴진과 중립적인 관리인 정부 하에서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교통 봉쇄와 항의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, 관련 시위는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해 방화 및 기물 파손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.
- BNP 활동가들은 방글라데시 사무국, 선거관리위원회, 총리실 등 다카의 주요 정부 건물 근처에서 연좌 시위와 봉쇄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.

#### □ 1월 7일 제12회 국민투표

- 선거관리위원(CEC)은 이날 선거 일정을 발표했으나, BNP 수석합동 사무총장은 선거 일정을 거부하면서 "불가피한 분쟁"으로 차단고 있다고 경고. 그는 "이 정부 하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"이라며 "우리는 편향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이콧한다"고 밝힘.

- 반면 집권 아와미리그는 EC 발표가 헌법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.
- 피터 하스 미국 대사는 도널드 루 미 국무부 남·중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보낸 AL, BNP, 자티야당 간의 "전제조건 없는 대화"를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. 서한은 "자유롭고, 공정하고, 공정하고, 참여적인 선거"를 재차 강조.
- 오바이둘 퀘달 아와미 연맹 사무총장은 도널드 루의 서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함.

#### □ 외교관을 향한 폭력행위, 우려제기

- 다카 주재 미국대사관은 19일(현지시간) "외교관을 향한 폭력, 즉 폭력의 위협은 용납될 수 없으며 매우 우려스럽다"고 밝힘. 스티븐 이벨리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터 하스 대사를 향한 위협적인 수사에 대해 우려를 거듭 제기.
- 대사관 대변인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미국 공관과 인력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.

#### □ BNP, 11월 22일 새로운 48시간 봉쇄를 발표

- BNP는 오는 7일 치러질 전국선거를 예고한 투표 일정에 항의하기 위해 6번째로 수요일(11월 22일)부터 48시간 봉쇄를 요구.
- 소방청에 따르면 10월 28일 이후 약 200대의 차량에 불이 붙었으며, BNP는 언론인 1명을 포함해 15명의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사망하고 약 1만4천명의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체포됐다고 주장.